

# 이사벨라와 성약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?



이사벨라는 코스타리카 알라후엘라에 살아요. 우리는 이사벨라에게 침례 성약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물어보았어요.



## 이사벨라는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줄래요?

저는 13살이에요. 저는 축구랑 요리, 바느질, 수영을 하는 걸 좋아하고,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도 좋아해요. 동물을 돕는 걸 좋아해서 수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.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스파게티와 피자이고,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보라색이에요.



## 이사벨라는 침례 성약을 어떻게 지키나요?

매주 회개하고 성찬을 취해요. 청년반에서 부름을 받았는데, 그 부름을 진지하게 받아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저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제 성약을 지켜요.



##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무엇을 하나요?

가족을 돕는 걸 좋아해요. 저는 세 살배기 사촌 동생인 리나의 부모님이 일하시는 동안 리나와 자주 놀아주곤 해요. 할머니, 할아버지께서 저를 필요로 하실 때 도와드리는 것도 좋아해요. 또, 반 친구의 프랑스어 시험공부를 도와주고 있어요.



## 자신의 부름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래요?

저는 청년반 제1보좌예요. 청년들을 보살피는 것은 제 의무 중 하나예요.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야 하죠. 그리고 공과와 활동 모임에 참여하고, 우리 반에 오지 않는 다른 여자아이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요.



## 처음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?

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해 주고 싶어요. 부름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돕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니까요.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! ●

